광양시, 봄날 '배알도 섬 정원' 사용설명서

포토존 · 시립예술단 버스킹 · SNS 이벤트 등 풍성

한국관광공사 2022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관광슬로건으로 내걸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양시가 봄맞이 홍보 이벤트에 나선다.

시는 최근 한국관광공사 '2022.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선정된 배알도 섬정원을 중심으로 관광브랜드 구축을 위한 시립예술단 버스킹, SNS 이벤트 등을 벌인다.

시는 안심관광지를 찾을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섬 정원 입구를 화사한 꽃으로 꾸미고, 섬 마당에 안심관광지 선정을 기념하는 포토존을 설치했다.

4월 배알도 섬 정원의 주말은 부드러운 봄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과 천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열린 콘서트장이 될 전망이다.

매주 토요일(4월 23일 제외) 오후 2시부터 광양시립국악단·합창단이 각각 2주씩 총 4주에 걸쳐 가야금, 해금 등으로 구성된 국악과 다채로운 합창곡을 선사할 계획이며, 우천 시에는 취소된다.

아울러, 오는 3월 26일~4월 말까지 광양관광 공식 인스타그램 '광양투어(gwangyang_tour)'를 활용한 이벤트도 운영한다.

광양=심종섭 기자

여수시, '도심 속 정원'으로 골목길에 따뜻한 공간 조성

여수시가 골목길 내 방치된 자투리땅을 녹색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우리동네 골목길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쌍봉동 도원사거리 일원 가로화단에 목수국, 측백데니카, 황매화를 심고 LED 조명을 장식해 어둡고 삭막한 골목길을 주민들의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골목길 정원'은 주민이 구상과 설계, 조성과정을 주도해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성 후 꽃 관리와 물주기 등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골목길의 아름다운 정경도 살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정원을 가꿔감으로써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게 됐다"면서, "도심 속 작은 정원이 골목 상권과 주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년부터 시작한 '골목길 정원 조성사업'은 노후 주택과 상가 골목길에 꽃과 나무, 자연소재를 활용한 아기자기한 녹색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여수=오상호 기자

보성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 교육 추진한다

보성군은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21일 벌교읍 옥전리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농기계 교관을 비롯한 전담팀이 구성돼 50회에 걸쳐 12개 읍·면 89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까지 마을별 영농현장에서 추진되며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분무기 등의 농기계 점검·수리를 돕는다.

농기계의 사용이 늘어나는 농번기 전에 농기계 점검 및 정비요령, 관리 방법 등 농업인 안전교육도 병행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자가 정비 능력을 향상하고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지역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여 제때 수리를 하지 못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비에 들어가는 부품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품비를 징수하지 않고, 1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 차액만 징수해 농가 경영부담을 덜어 주어 농업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봄철 산행중 산나물 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올해 하반기 착공, 2025년 완공목표

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허석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및 설계용역사 ㈜프라우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최종보고회에서는 종합 배치, 공간구성, 조경 및 경관 계획 등에 대한 설계안을 보고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 신청사는 26,758㎡ 대지면적에 건축연면적 47,000㎡,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건립된다.

신청사와 함께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사업인 문화스테이션은 연면적 12,000㎡, 지상5층 규모로 문화생활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가족센터, 로컬푸드, 인생이모작센터, 주차장 등 6종의 문화복합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시는 완성도 있는 설계 마무리를 위해 세부사항을 조율하여 오는 4월까지 14개월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청사 건립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공모, 설계용역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손길이 담긴 만큼, 설계 마무리까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중한 의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순천시 신청사의 순천지평, 중앙공원 및 중정들이 원도심의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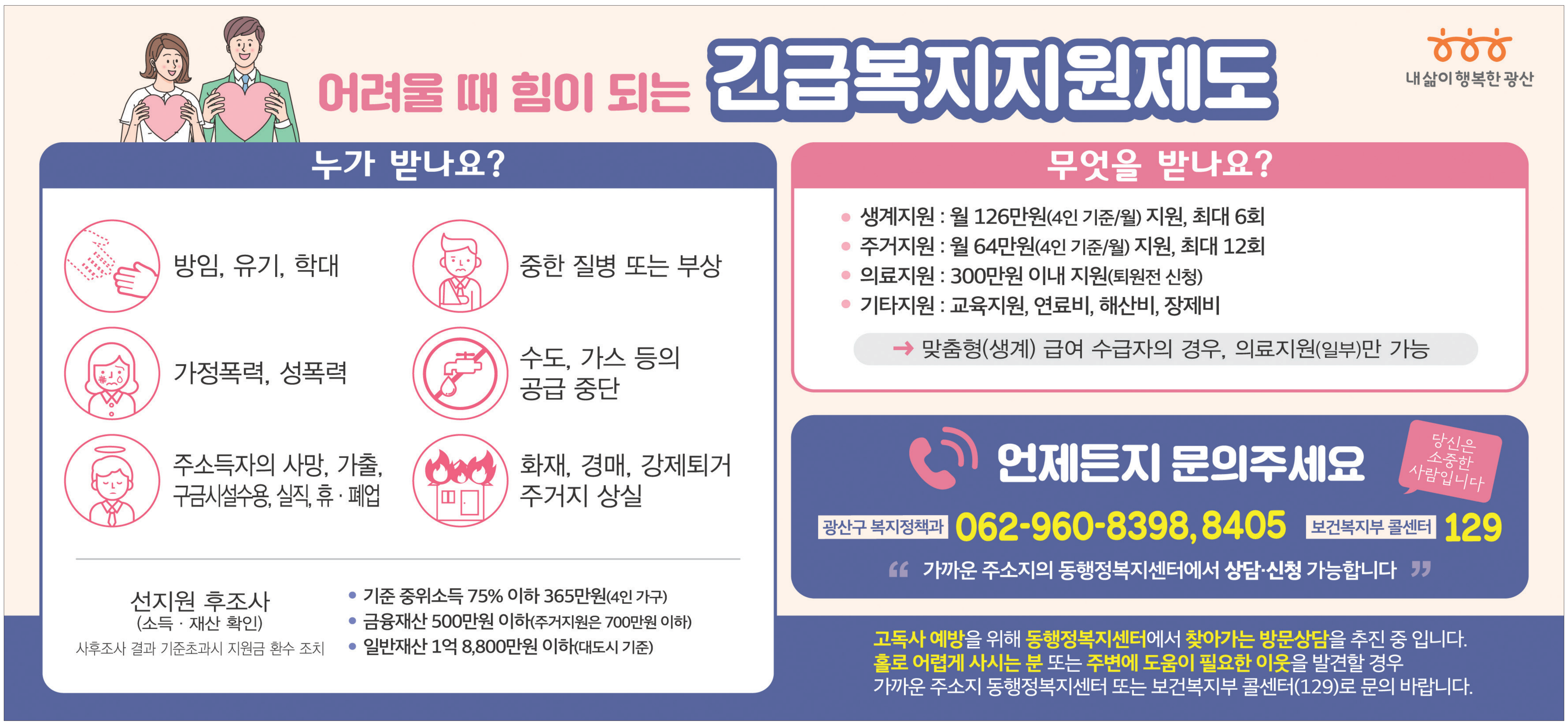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은 금년에 총 사업비 5천만8십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철선울타리와 메쉬휀스,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 중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 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3월 28일까지 시설 설치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도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21농가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